

ESG 경영, Digital로 가치를 더하다

정이선 수석연구원, 철강연구실 (ls.chung@posr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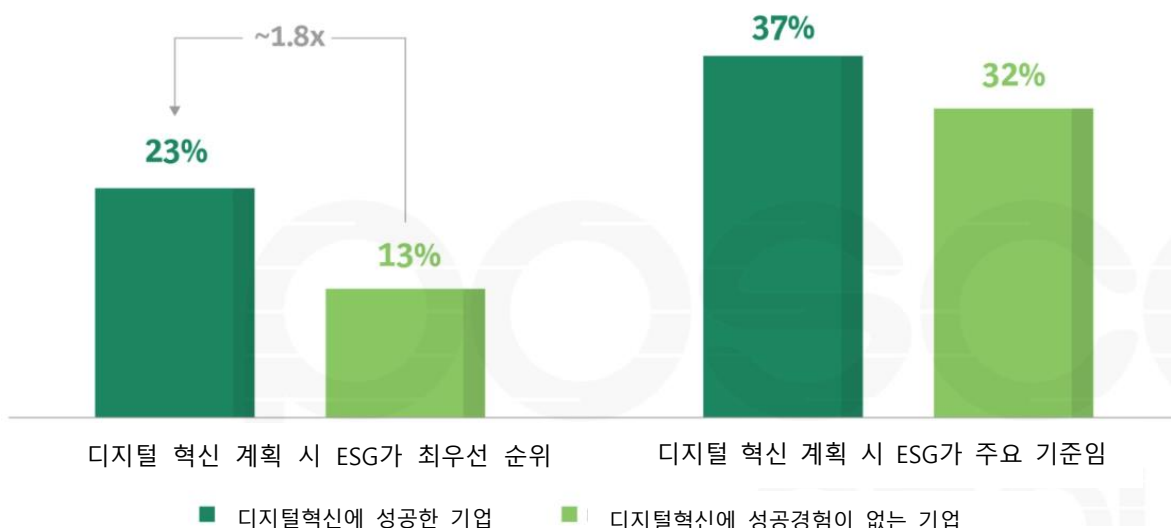
Summary

- 최근 기업 경영의 주요 전략 키워드인 ESG와 Digital Transformation은 개별 전략 이기도 하나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Digital ESG 경영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
- [Environmental] Nestlé는 AI를 활용한 원료 채굴 모니터링으로 산불 발생 여부, 삼림 훼손 여부 등을 감시하여 삼림벌채의 투명성을 보장함
- [Social] Volv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책임 있는 공급망 네트워크를 도입함으로써 윤리적인 원자재를 공급하는 감시 시스템을 마련함
- [Governance] Heineken은 내부 감사 진행 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내부감사를 강화함
- 효율성이 낮은 분야,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부터 디지털 툴을 활용하고, 기업환경에 맞추어 내재화함으로써 한 단계 진화한 ESG 경영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1. 배경

- ESG와 Digital Transformation은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자 미래 트렌드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핵심적인 전략 방향이기도 함
- ESG 경영과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은 별도로 추진되기도 하지만, 함께 추진되었을 때 전략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두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는 선진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음
- BCG(Boston Consulting Group)에서 전세계 85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60% 이상의 기업이 ESG 요소를 디지털 이니셔티브로 선택하고 우선 순위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디지털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다른 기업 대비, ESG 목표를 디지털 이니셔티브의 핵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두 배 가까이 높음
 - 이는 다수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자들이 디지털과 지속가능성을 통합해 고려하면서,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이 기업의 핵심 의제인 ESG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임

[디지털 혁신 계획 시 ESG 의제 고려 비중]



출처: Boston Consulting Group('22.3.31), 'The Five Digital Building Blocks of a Corporate Sustainability Agenda'

2. Digital Transformation과 ESG를 통합한 기업 사례

1) Nestlé: AI를 활용한 원료 채굴 모니터링으로 친환경 경영 제고

- Nestlé는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혔으나,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로부터 팜유 공급 농장의 삼림 훼손으로 인한 오랑우탄 서식지 파괴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음
- 이 과정에서 그린피스는 Nestlé를 공격하기 위해 오랑우탄이 등장하는 비판 광고를 만들어 기업 평판에 큰 영향을 끼침
- Nestlé는 삼림보호플랫폼 Starling과 협업하여,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기반 AI기술과 GPS 기술을 활용해 팜유 농장 인근 숲을 실시간 모니터링함.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여부, 삼림 훼손 여부 등을 감시하여 삼림벌채의 투명성을 보장함
- 원료 조달과정의 친환경성까지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그린워싱 오명에서 벗어나고 기업 평판에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됨

2) Volvo: 블록체인을 이용한 책임있는 공급망 네트워크(RSBN)로 사회적 가치 실현

- DR공고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의 주원료인 코발트를 채굴하기 위하여 아동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 이슈가 됨.
- 이에 Volvo 자동차는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추적 블록체인 기술(RSBN : Responsible Sourcing Blockchain Network)을 활용하여 윤리적인 원자재를 공급하고 사회적 감시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함

* RSBN은 IBM Blockchain 플랫폼을 기반으로 광물 및 금속 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관행의 투명성, 추적성 및 검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로 Ford, Volkswagen, LG화학 등이 참여하여 원자재 공급에서부터 사회적 가치를 추구

3) Heineken: 디지털 기술을 통한 내부감사 효율성 확보

- 기존에 기업의 내부감사는 막대한 감사 비용 감축을 위하여 대상인원 10% 내외의 샘플 집단에 대해서만 이루어짐
- Heineken은 내부감사 진행 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통한 반복작업 효율성 확보와 이미지 문자 판독 기술인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도입하여 시간 및 비용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대상인원 대다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였음

- 향후 실시간 감사 체계로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된다면, 감사에 대한 조치나 결과 공시가 적시에 이루어져 이해관계자 정보제공 시 정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구현될 것으로 예상
- 기업들은 디지털 혁신을 ESG 경영에 도입할 때 공급망 최적화와 에너지 소비 감소(E영역), 이해관계자 데이터 보호와 사회적 포용성 향상(S영역), 직원 협업 개선과 사건 위험 관리(G영역) 등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고 있음
-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공급망이나 산업 생태계 데이터와 통합하여 기업 자체의 프로세스를 넘어 확장된 형태의 인프라를 구축할 때, 보다 혁신적인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 기업에서 ESG 데이터 및 성과를 관리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 시,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Digital ES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ESG 성과 관리를 위한 데이터 축적을 Digital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적관리와 지표수립이 가능하고, 이해관계자 정보 및 근거 제시 측면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ESG 경영 측면에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가능
- 효율성이 낮은 분야,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부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고, 기업이 처한 환경에 맞게 내재화하여 한 단계 진화한 ESG 경영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기후 변화, 사이버 사고 등 외부 요인과 관련된 위험의 실시간 추적, 정량화, 위험관리 등은 기업에서 디지털을 통하여 추적 관리할 때 매우 효율적이고 중요한 영역임
 - 외부 환경의 이슈가 고객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이해하고, 재정적 영향을 계산하고, 의사결정 매커니즘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업은 내부와 외부의 의사결정과 책임에 대한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음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Nestle, <https://www.nestle.com/>, 'Our palm oil transparency dashboard'
- Ledger Insights, '19.11., 'Volvo joins VW, Ford, IBM for blockchain cobalt traceability'
- BCG, '22.3., 'More Than 60% of Companies Prioritize ESG in Their Digital Transformations'
- BCG, '22.3.31., 'The Five Digital Building Blocks of a Corporate Sustainability Agenda'
- LG경영연구원, '22.7., 'ESG 가시성, Digital ESG로 강화하다'